

02/21/2020

[엘피스 청소년 부모 세미나] 2월 기사

센터빌에 위치한 사림의 교회 (김영봉 목사)는 지난 토요일 2/22 일 저녁 6 시에 모니카 이(심리상담사/부부가족치료사)를 초대하여 첫번 '엘피스 부모교육 세미나' (이하 엘피스 세미나)을 가졌다. 모니카 이 상담사는 '엘피스(ἑλπίς)는 헬라말로 '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'를 뜻하는데, 청소년기와 사춘기 시기는 인간발달 과정 중 지나가는 과정이기에, 결국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희망을 품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 배우고 견디면서 지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했다'라고 한다.

20 여명이 참석한 첫 모임에서 모니카 상담사는 '사춘기가 되면서 방 문을 꼭 닫아버리고, 말대답하며 무례해지고 눈에서 레이저 빔이 나오는 등 너무도 달라진 자녀들이 당황스럽고 혼란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것이다.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아이들임을 이해해야 한다. 신체의 변화, 호르몬의 불균형 뿐 아니라 감정의 뇌는 거의 다 발달했는데, 이성의 뇌는 27 살이 넘어야 발달하고, 친구와의 관계에도 큰 변화들이 오고 공부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등 엄청 큰 혼란함과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다'로 설명하였다. 그러면서 청소년의 뇌와 호르몬 등을 설명하는 '10 대들의 사생활 (Why do they act that way?)'란 책을 권하였다.

매달 사춘기와 프리틴(pre-teen)을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세미나는 매달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1 시간 동안 배우고 나머지 한시간은 '즉문즉설'로 이루어지고,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나 궁금한 것들은 미리 강사에게 이메일로 (MonicaLeeLPC@gmail.com)로 보내면 나머지 1 시간 동안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실제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. 다음번 모임은 3/21 (토) 저녁 6-8 시에 센터빌에 위치한 사림의 교회 소예배실에서 '청소년의 뇌와 호르몬' 및 '불안'을 주제로 가질 예정이다. 세미나는 커뮤니티에 무료로 활짝 열려 있으며 미리 사전등록을 권한다.